Daishin 증권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Fixed Income

[대신증권 공동락] WGBI 지수 편입 앞두고 밝힌 국채시장 안정화 의지

- 긴급 국채 바이백 5조원 실시. 추경 안에도 국채 순상환 반영해 추진
- 4월 WGBI 편입을 앞둔 시장 안정화 조치. 최근 높아진 변동성 진정 효과
- 그러나 韓도 이미 국채 수급 민감성 높아. 수급 우려는 글로벌 트렌드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중동 긴장과 터보 퀀트 여파로 Risk-Off 심리 확대

- 트럼프의 종전 발언에도 불확실성 지속,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순매도
- 터보 퀀트 공개 이후 메모리 수요 약화 우려 확산
- 제약, 금융, 화학 선방, 외국인 바스켓 매도에 전반적 약세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 여부가 관건

- 지나친 낙관론도, 최악의 부정론도 경계.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 불확실
- 미국 고용지표, ISM제조업, 소비자신뢰지수 등 지표 해석에 따른 등락 불가피
- 공포심리 확산 시 비중확대 기회. 환율 안정 시 대형주/주도주 상승 재개 전망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4월 1주차]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진행이라는 상황에 의미를 둘 때

- 종전 관련 결과는 추후 문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주목. 중동 긴장 완화 기대
- 트럼프, 5.14~15일 중국 방문 확정 의미. 방중 이전, 전쟁 마무리 가능 간주. 선 합의(4.9일)-후 논의(5.14일 전) 방식 진행 예상
- 전쟁도 막지 못하는 미국 기업의 견고한 실적 증가세. 4월 안도랠리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유효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Commodity

[대신증권 최진영] 이란 전쟁이 끝난다면 여전히 금보다는 비철금속

- 이란 전쟁 중단(금리 인상 우려↓) 가능성, 헷지 자산인 금에는 반등 기회
- 그러나 문제는 1)케빈 워시와 2)CME 거래소, 전고점 상회가 어려운 이유
- 그렇기에 금보다 비철금속, 사태 진정 시 비철금속 주도 시장 회귀 기대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Market Review] 1 월 도쿄 맨션(아파트) 시장과 오피스 시장 이상 무(無)

- 3/17일 국토성 발표, 2026년 전국 평균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전년비 +2.8%), 도쿄권 평균 공시지가(전년비 +5.7%)
- 1월 도쿄 23구 신축 맨션 공급량 전년비 +10% 증가. 평균 공급가는 12,126만엔으로 전년비 +16% 상승
- 1월 도쿄 도심 5구 오피스 공실률 2.2%로 11개월 연속 하락. 평당 임대료는 21,648엔으로 24개월 연속 상승

나미선. misun.na@daishin.com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WGBI 지수 편입 앞두고 밝힌 국채시장 안정화 의지

- 긴급 국채 바이백 5조원 실시. 추경 안에도 국채 순상환 반영해 추진
- 4월 WGBI 편입을 앞둔 시장 안정화 조치. 최근 높아진 변동성 진정 효과
- 그러나 韓도 이미 국채 수급 민감성 높아. 수급 우려는 글로벌 트렌드

긴급 국채 바이백 5조원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정부가 긴급 국채 바이백 5조원 실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 계획 등을 통해 국채시장에 대한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 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채권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초과 세수 활용한 국채 순상환도 추진. 최근 높아진 금리 상승 변동성 겨냥

26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27일 2.5조원, 다음 달 1일 2.5조원 등 2회에 걸쳐 총 5조원에 이르는 국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순상환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국채 금리 움직임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금리 스프레드 동향이 기준금리 인하가 종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에 더해 인상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통해 금리 변동성의 진정을 꾀한 바 있다.

실제 이총재의 발언 이후 국채 금리는 대체로 안정적인 동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후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금리는 다시 변동성을 키우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게다가 시장금리는 신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기점으로 기준금리 인상 전환에 대한 우려까지 반영해 금리가 추가로 더 상승 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WGBI 편입을 앞둔 국채시장에 대한 교통정리. 상시 점검반도 가동 예정

당사는 이번 재정경제부의 조치들로 인해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 및 변동성 분출은 어느 정도 진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나 다음 달부터 WGBI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이 예정된 가운데 금리의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국채를 매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담 요인도 동시에 반영됐다는 견해다.

실제로 정부는 WGBI 편입에 맞춰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여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또 WGBI 추종 자금 유입 기간(4월부터 11월까지)동안 수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자금 유입 상황을 점검하고, 유입 촉진 방안도 강구하는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됩니다.

Strategy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중동 긴장과 터보 퀀트 여파로 Risk-Off 심리 확대

- 트럼프의 종전 발언에도 불확실성 지속,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순매도
- 터보 퀀트 공개 이후 메모리 수요 약화 우려 확산
- 제약, 금융, 화학 선방, 외국인 바스켓 매도에 전반적 약세

트럼프의 종전 발언에도 불확실성 지속,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향후 몇 주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힘. 그러나 발언과는 다른 군사적 행동으로 시장의 경계심리는 잔존. 미국은 3천명 규모 82공수사단의 중동 투입을 승인했고, 향후 며칠 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공존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유가도 상승 중. WTI는 90달러선을 돌파했고, 브렌트유는 100달러 선에 근접하며 위험회피 심리 자극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상황.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약 7.0조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금일에도 약 3.1조원 순매도. 물리적으로 미 군사의 중동 투입 가능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Risk-Off 심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

터보 퀀트 공개 이후 메모리 수요 약화 우려 확산

구글은 AI의 메모리 사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터보 퀀트'를 공개. AI 산업의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관련주가 하락했고, 이에 국내 증시에도 관련 우려가 반영되는 모습

다만 AI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아니며, 기술 효율성의 개선이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무어의 법칙"이 맞서는 중. 그럼에도 올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던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반도체: 삼성전자(-4.7%), SK하이닉스(-6.2%), 한미반도체(-7.3%)

제약, 금융, 화학 선방, 외국인 바스켓 매도에 전반적 약세

개별 기업 호재와 업종별 순환매로 강세

제약/바이오: 알테오젠(+6.3%), 한올바이오파마(+11.2%), 코오롱티슈진(+17.1%)

금융: KB금융(+1.9%), 신한지주(+1.4%), 메리츠금융지주(+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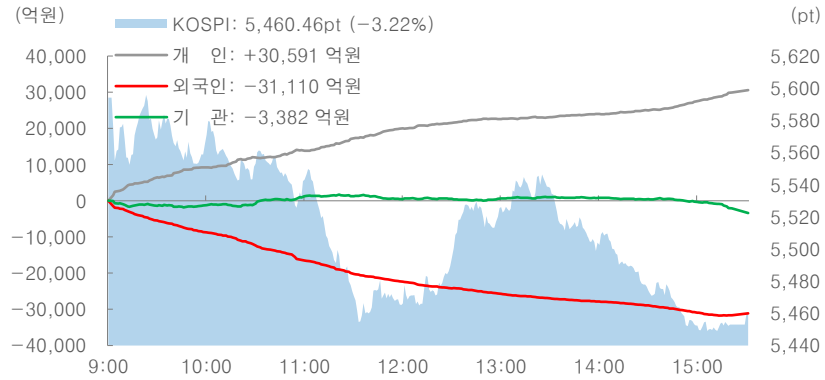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부과 방침. 주한 이란대사가 한국은 비적대국으로 언급

화학: 롯데케미칼(+0.9%), 효성티앤씨(+1.2%), DL(+2.1%), 대한유화(+1.6%)

외국인 투자자의 바스켓 매도가 이어지며 그외 업종 대부분 약세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2.7%), 효성중공업(-4.4%), 대한전선(-4.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trategy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 여부가 관건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지나친 낙관론도, 최악의 부정론도 경계.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 불확실
- 미국 고용지표, ISM제조업, 소비자신뢰지수 등 지표 해석에 따른 등락 불가피
- 공포심리 확산 시 비중확대 기회. 환율 안정 시 대형주/주도주 상승 재개 전망

지나친 낙관론도, 최악의 부정론도 경계.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 불확실

이란발 지정학적 충돌은 점진적인 협상 국면으로 진입 중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신호와 함께 지상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상반된 행동을 병행. 시장에서는 "발언보다 행동을 보아야 한다"는 우려와 동시에 이란의 협상단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상충되며 우려와 기대가 혼재된 상황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정학적 충돌 그 자체 보다는 에너지 공급망 봉쇄. 이란이 비적대국 선박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통행료 납부를 전제로 통행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에너지 공급망의 실질적 붕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 비용구조 고착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유가가 추가 상승하며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 행진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등 우려 완화 가능

미국 고용지표, ISM제조업, 소비자신뢰지수 등 지표 해석에 따른 등락 불가피

다음주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 4월 3일 밤 발표될 3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전쟁이 실물 경제에 미친 타격을 확인 가능. 3월 신규고용은 전월 -9.2만명 대비 개선된 +5.1만건으로 컨센서스 형성. 이는 3월의 전쟁 영향이 아직 고용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시사. 1일 발표되는 ADP 민간고용이 고용 보고서의 가늠자가 될 것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표도 확인. 주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와 31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4월 1일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예정.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효과와 기업의 가격인상 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소비 위축과 가격전이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 가능,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 24일 발표되었던 S&P Global PMI에서 이미 공급망 차질과 1년만의 고용 감소 전환이 확인되었고 부진한 지표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존재

공포심리 확산 시 비중확대 기회. 환율 안정 시 대형주/주도주 상승 재개 전망

글로벌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만연한 반면 국내에서는 긍정적 요인 또한 존재. 4월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진행되며 11월까지 점진적 지수반영 예정. 국고채 비율 증가에 따라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유입 기대. 4월 1일 3월 수출입 지표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고한 펀더멘털 확인이 가능할 것. 두 요인을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와 달러원 환율 하락이 유도된다면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부각될 수 있을 것

현재 코스피 5,460선 기준 선행 P/E는 8.26배로 선행 EPS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우려로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가 출구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은 공포를 활용한 매수 기회라는 관점 유지. 특히 환율 상승이 둔화되는 시점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도체, 자동차, 증권, 지주, 방산, 2차전지 등 대형주와 주도주의 비중확대 전략 유효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미국–이란, 종전 협상 진행이라는 상황에 의미를 둘 때

- 미국–이란, 종전을 위한 협상 진행. 4.9일 미국이 제시한 종전 잠정일
- 트럼프 중국 방문 일정 확정. 5.14일 전, 선 합의–후 논의 방식 진행 가능성
- 전쟁도 막지 못하는 미국 기업의 견고한 실적 증가세. 비중확대

종전 관련 결과는 추후 문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주목. 중동 긴장 완화 기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미국–이란 간 종전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자국 안을 최대한 수용시키기 위한 불협화음(예: 이란 외무부, 협상 부인)은 당연하기 때문에, 종전 결과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종전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국이 종전 잠정일로 설정한 4월 9일 전까지 중동 긴장 완화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1월 베네수엘라 사례(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 권련 이양)를 감안 시, 트럼프 행정부는 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게 내세우려는 정황도 미국이 출구전략에 나서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4월 22일 이스라엘 건국기념일 전 전쟁이 끝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훈장 '이스라엘상'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도 미국의 출국전략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5.14~15일 중국 방문 확정 의미. 방중 이전, 전쟁 마무리 가능 간주. 선 합의-후 논의 방식 진행 예상. 동 과정 진행되는 동안 위험선호심리 뒷받침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을 5월 14~15일로 확정했다. 이번 G2 정상회담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보다는 갈등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이란 전쟁과 대만 문제 그리고 관세, 희토류, 첨단기술 수출 통제, 농산물 구매가 어젠다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이란의 경제 혈맹이자 반서방연대를 함께하는 국가지만, 전쟁 중인 이란을 지원하기보다는 중재에 나서는 선택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도 했겠지만, 중국 역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확정이 의미 있는 점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전까지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시한 잠정적 종전일인 4월 9일까지는 미국과 이란이 포괄적 합의에 이르고, 트럼프 중국 방문일인 5월 14일 전까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선 합의–후 논의 방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선호심리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쟁도 막지 못하는 미국 기업의 견고한 실적 증가세. 4월 안도랠리를 염두에 둔 비중확대 유효

4월 미국 증시는 종전 협상이 시작된 만큼 안도랠리를 등에 업고 상승 잠재력이 크다. 전쟁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에도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M7 중심의 지속적 기업이익 증가 감안 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Commodity

이란 전쟁이 끝난다면 여전히 금보다는 비철금속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이란 전쟁 중단(금리 인상 우려↓) 가능성, 헷지 자산인 금에는 반등 기회
- 그러나 문제는 1)케빈 워시와 2)CME 거래소, 전고점 상회가 어려운 이유
- 그렇기에 금보다 비철금속, 사태 진정 시 비철금속 주도 시장 회귀 기대

이란 전쟁 중단(금리 인상 우려↓) 가능성, 헷지 자산인 금에는 반등의 발판

금 가격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전쟁 기간 동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원유와 LNG, 질소계 비료의 주요 수출 경유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봉쇄되면서 정책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인플레이션↑우려)하게 됐고 이로 인해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 관계인 금은 하방 압력에 노출됐다. 안전자산 수요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던 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도 단기 내 진정될 수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15개 쟁점(우라늄 농축 포기, 핵 시설 해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전쟁 피해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 또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중국, 인도, 일본 등)에 대한 이란의 통행료(배럴당 1달러 = VLCC급 유조선(운송 능력: 200만배럴) 1척당 200만달러) 부과를 용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양측 모두에게 수용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질 시 금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1)케빈 워시와 2)CME 거래소, 전고점 상회가 어려운 이유

다만, 방향성 측면에서 전고점 상회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 근본적 이유는 1)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등장이다. 그는 정책금리 인하와 대차대조표 축소(QT)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만한 통화 팽창(화폐 가치↓) 조치가 부재하다면 금을 통한 헷지 수요 역시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특히, 2)귀금속에 대한 CME의 증거금 산정방식이 비율제(명목 가치 상승 → 담보금 자동 증가)로 바뀐 상황에서 전고점 상회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금보다 비철금속, 사태 진정 시 비철금속 주도 시장으로 회귀 기대

그렇기에 금보다 비철금속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자료 〈슈퍼 사이클의 서막, 시작된 원자재 내 순환매(2/10)〉에서 전한 것처럼 원자재는 이론적으로 유동성이 발생할 시 '귀금속 → 비철금속 → 에너지 → 농산물' 순으로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탓에 에너지 주도 시장이 조기 도래했지만 현 사태가 진정된다면 다시 비철금속 주도로 회귀가 가능하다. 비철금속을 선행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횟수가 말해주는 것처럼 내년 7월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물론 아직 이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시 주요 전력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경고했다. 여차하면 지상군(11해병원정대, 육군 82공수사단 등)까지 투입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전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영토(주권)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 서로 실질적 이익(미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 포기 + 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장기 공급 계약 /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만 확보되면 언제든 중단할 전쟁이다. 여전히 단기전(3~4월) 시나리오가 유효하다면 다음 상승하게 될 원자재는 비철금속이다.

일본 부동산

나미선 misun.na@daishin.com

[Market Review] 1월 도쿄 맨션(아파트) 시장과 오피스 시장 이상 무(無)

[경제]:

– 3/10일 내각부, 25년 4분기 GDP 성장률(수정치) 1월 속보치(+0.1%)에서 +0.3%로 상향 조정 (연율 환산치 0.2% → 1.3%)

– 일본 GDP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속보치(+0.1%)에서 +0.3%로 상향 조정 (최신 서비스 산업 통계 결과 반영)

– [기업 설비투자]는 속보치(+0.2%)에서 +1.3%로 대폭 상향 조정

[통화정책과 유동성]:

– 3/19일 BOJ 금융통화정책,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현행 0.75%)

– 3/19일 BOJ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에서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물가 목표 2% 실현을 내다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발언

– 1월 M3 평균 잔고(총 통화량) 전월대비 보합, 전년대비 +1.0%

[부동산 업황]:

– 1월 일본 부동산업 경기동향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전월비 –0.2p)

[토지 시장]:

– 3/17일 국토성, 2026년 전국 평균 공시지가 5년 연속 상승 (전년비 +2.8%)

– 1월 수도권 토지 거래건수 전년비 +15%, 평균 거래가 전년비 +9%

[주택 시장]:

– 1월 전국 신규 주택착공수 5만 5,898호 (전년비 –0.4%)

– 1월 수도권 신축 맨션 공급량, 전월비 –89% 전년비 +1.3% 증가한 628호. 평균 공급가는 8,383만엔으로 전월비 –1%, 전년비 +14% 상승 (도쿄 23구: 12,126만엔, 전월비 –18% 전년비 +16%)

– 1월 수도권 기존 맨션 거래량, 전월비 –16% 전년비 +3% 증가한 3,362건. 평균 거래가는 5,493만엔으로 전월비 +3%, 전년비 +7% 상승 (도쿄 23구: 8,339만엔, 전월비 +2% 전년비 +35% 상승하며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

[오피스 시장]:

– 2025년 도쿄 도심 5구 누적 오피스 거래량 전년비 –27% 감소, 거래규모는 전년비 +17.4% 증가한 약 1.9조엔

– 1월 도쿄 도심 5구 오피스 평균 공실률 2.2%로 전월비 –0.1%p 하락. 평당 임대료는 전월비 +1.1% 상승한 21,648엔으로 24개월 연속 상승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